

환율 급등에 환테크 관심 높아간다

달러 환율 1180원 육박...2년 4개월 만에 최고 외환예금·달러보험 등 주목...투자는 신중해야

9일 원달러 환율이 1179원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달 17일 1133.5원에서 22일 사이에 46원 이상 경총 뛰었다. 2017년 1월 16일(1182.1원, 종가 기준) 이후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다. 달러가치가 치솟고 있는 것이다.

이런 원유 수출 제재,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오른 데다 반도체 수출 부진, 국내 1분기 경제성장률 -0.3% 기록 등 각종 약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다. 여기에 미국 경제지표는 양호하게 나와 달러 강세에 불을 지피고 있다.

환테크의 기본은 달러화가 쌀 때 샀다가 비쌀 때 팔아 차익을 보는 것이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크고 달러당 원화값 가치가 요동치면 달러 매수·매도 기회를 여러 번 잡을 수 있어 환테크의 적기로 불린다.

지금처럼 달러가치가 원화보다 많이 오른 시기는 환테크의 좋은 시점은 아니다. 이날 기록한 원달러 환율 1179.8원은 지난 1월 31일 1113원과 66.8원이나 차이가 난다.

주요 금융기관에서 올해 환율 전망치를 1110~1150원 선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 수준보다 달러가 쌀 때 사는 것이 수익 성을 높이는 길이다. 다만, 환율 예측은 리

스크가 큰 만큼 투자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달러 투자는 시중은행의 외환예금, 달러 상장지수펀드 상품이나 보험·증권사에서 주로 취급하는 달러보험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외환예금, 예금금리와 환차익 동시에 = 외환예금은 예금 금리와 환차익으로 동시에 수익을 볼 수 있고, 원금 손실 우려가 적어 대표적인 환테크 상품으로 꼽힌다.

KEB하나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미 달러화 외환예금 신규가입 고객에게 높은 금리 및 하나머니 경품을 제공하는 '더 (+)하기, 외환예금(USD) 신규가입' 이벤트를 시행한다. 오는 10월31일까지 미 달러화(USD)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인 슈퍼플러스(MMDA)에 가입하는 신규고객에게 하루만 예치해도 연 1.8%의 금리가 적용된다. 또 미달러화(USD) 보통예금 신규 개인 고객 중 월말 기준 미화 1000달러 상당액의 잔액을 유지하면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매일 100명에게 3만 하나머니도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오는 6월 말까지 외환예금 신규 가입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

는 '환테크-캐슬(castle)! KB외환예금 신규가입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미화(USD) 1만달러 이상 'KB외환정기예금'을 신규로 가입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등(1명) 50만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2등(2명) 30만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3등(200명) 1만원권 신세계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4등(30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 등 총 503명에게 풍성한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벤트 기간 중 영업점에서 'KB수출입기업우대외환통장'을 신규로 가입한 고객에게는 외화 입출금(USD, JPY, EUR) 시 금액 및 횟수에 제한 없이 최대 70% 환율 우대를 제공한다.

NH농협은행 '다통화 월복리 외화적립예금'은 내국인이 1년간 달러화를 예치하면 연 2.73%를 적용해 원만한 원화 정기에 금보다 금리 수준이 높다.

◇달러 표시 채권·달러보험도 =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달러 표시 채권이 있다. 특정 기간 동안 금리를 정해놓고 만기가 되면 팔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이때 화폐 단위 설정을 달러로 해놓는 채권을 뜻한다.

예를 들어, 미국 넷플릭스 채권(회사채)이 5월에 발행됐다고 치자. 이때 원달러 환율이 올해 5월 1160원에서 1년 만에 1300원이 됐다면? 증권 채권 5%대 연 수

익률에 더해 환차익으로 또 10% 이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른바 환테크가 가능해진다.

달러 표시 채권은 은행·증권사 등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다만 관련 상품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어서 금융사나 자산 컨설턴트에게 미리 얘기해 물량을 확보·투자하는 게 방법이다. 더불어 채권 투자가 생소하다면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에 가입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미래에셋 위메지달러회사채펀드, 키움 달러표시우량채권, 삼성 달러표시사단기채권 등 시중에서 가입할 수 있는 달러 표시 채권형 펀드는 최근 6개월 수익률이 4~8%, 연간은 10~1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환율이 유동적인 만큼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다. 위험 부담이 따른다는 얘기다.

달러보험은 보험료를 미국 달러나 원화로 납입한 뒤 보험금을 탈 때 달러로 받는 상품이다. 달러 예금에 비해 이율이 높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메트라이프생명에서 지난해 초 출시해 누적 판매 6만건을 돌파한 '유니버설 달러 중신보험'은 달러값이 오를 때는 중도 인출해 환차익을 볼 수 있고, 떨어질 때는 추가 납입해 줬다가 달러값이 오르면 더 많은 보험금을 탈 수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쓰고 담고 농협 포인트 하나로 모으세요”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8일 농협계열사 포인트 서비스를 통합한 'NH멤버스'의 가입을 늘리기 위한 캠페인을 열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NH멤버스' 가입 캠페인

농협계열사 포인트 서비스를 통합한 'NH멤버스'가 올해 가입 회원 2500만 명을 채운다는 계획을 세웠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8일 광주 지역 농협 상임이사·전무들과 농협 'NH멤버스' 출시 가입 캠페인을 열었다.

NH멤버스는 전국 농·축협과 농협계열사의 포인트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범농협 포인트 회원 제도이다. 농협중앙회, 금융지주, 경제지주 등 농협의 16

개 법인과 전국 1122개 농·축협이 참여하고 있다.

'생활이 포인트다'를 내걸고 고객이 농협 계열사에서 포인트를 손쉽게 적립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NH멤버스의 취지다.

NH멤버스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기존 채움포인트 회원 약 2000만명과 신규 회원 500만명을 유치해 총 회원 2500만명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금융위, 신협·새마을금고 집단대출 규제

자영업자 대출 관리도 강화

지역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먼저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에 고강도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 강도도 높하기로 했다.

금융위 금융위 부위원장장은 9일 오전 상호금융기관 관계자들과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목표인 5%대에 맞춰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총론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6월부터는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조합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 강도를 큰 폭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우선 최근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에는 ▲예대출규제(80~100%) 미충족 조합은 집단대출 취급을 금지하고 ▲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500억원)를 신설하는 등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그동안 집단대출 영업을 사실상 중단시켰던 새마을금고에는 신협 수준 이상의 취급 기준을 적용하고 대출대비 집단

대출 비중을 현 수준(7.4%)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임대업대출에 편중되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제2금융권 자영업 대출에 대한 관리 강도도 높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자영업대출 및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사가 스스로 취급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은 내년 말까지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43%까지, 여전사는 올해 말까지 10%, 내년 말까지 15%, 2021년 말까지 20% 비율을 맞춰야 한다.

지역 대출 연체현상이 당장 '위기'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만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권의 의견이다.

광주지역 은행도 가계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오르는 마찬가지다. 2017년 말 대비 지난해 말 지방은행별 가계 부문 연체율을 보면 광주은행은 0.16%에서 0.28%로 올랐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018년 광주전남 예금은행 대출 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 은행 대출 가운데 가계대출 비율은 40%대(40.4%)를 넘었다. 한국은행이 지난 달 24일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경제동향 2019년 3호'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총대출금 중 중소기업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3.3%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6%)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미국주식 '직구 열풍'...MAGA·디즈니 등 인기

전년비 39% 늘어

국내에서 해외주식을 직접 사고파는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난 가운데 최근 미국주식 직구(직접 구매)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실적 이 좋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디즈니 등에 직구족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9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거래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4월 기준 67.4%로 홍콩(16.1%), 중국(7.9%), 일본(6.1%), 유로시장(0.1%)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난달 미국주식 결제금액은 20억 7000만달러(한화 약 2조 4000억원)로 작년 동월(15억 9000만 달러)보다

29.9% 증가했다.

결제대금은 매수와 매도를 모두 합한 금액으로, 매수만 보면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

매수 금액은 11억 1900만 달러(약 1조 3000억원)로 작년 4월(8억 600만 달러)보다 38.8% 늘었다.

미국주식 직구 금액은 최근 몇 년 사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도 시기별로 증시 변동성에 따라 다소 등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미국증시가 급락한 지난해 12월에는 전체 결제금액이 두 달째 감소세를 보였으며 매수 금액은 7억 8000만 달러로 줄었다. 그러다가 올해 미국증시가 다시 활기를 띠면서 1~3월 월별 매수 금액은 각각 10억 4700만 달러, 10억 8800만 달러, 11억 4800만 달러로 증

가했다.

올해 들어 지난 7일(현지시간)까지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 나스닥 지수는 각각 11.3%, 15.0%, 20.0% 올랐다. 이 기간 코스피는 6.2% 상승했다. 특히 지난 4월 24일에는 S&P 500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증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영향으로 국내 미국주식 보관금액도 4월 말 기준 59억 9700만 달러(7조 100억원)로 한 달 전의 56억 1600만 달러보다 크게 늘었다. 보관금액은 각 종목의 보유주식 수에 증가(전날 종가)를 곱한 금액으로 주가가 오르면 더 빨리 늘어난다.

종목별로는 근래 '마가'(MAGA)로 불리며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마이크로

소프트, 아마존, 구글, 애플 등 4개 종목이 국내 직구족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예탁원이 4월 이후 이달 7일까지 집계한 미국주식 종목별 결제금액 순위를 보면 아마존, 알파벳(구글의 모회사),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순서대로 1~4위를 차지했다. 또 엔비디아와 테슬라, 넷플릭스가 7~9위에 올랐고 월트 디즈니(이하 디즈니), AMD, 알리바바가 11~13위를 차지했다.

결국 최근 주식 직구족의 투자 대상으로 인기를 끄는 상위권 종목은 대부분 미국 기업이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초대 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학산운명감정원

동구 대인동 고운하이츠 오피스텔 302호 사주, 작명, 개명, 궁합, 신수, 택일 사업, 시험, 진급, 결혼, 조매 (경력33년) 원장 전홍석 ☎ 062-225-2157

라발레 학원

서구 내방로235 삼화빌딩 2층 고급 댄스 플로어 시설에서의 수준별 정원으로 세계적인 커리큘럼으로 클래스가 이루어집니다. 유아발레, 초등발레, 중·고등발레, 성인발레 전문학원 ☎062)381-0065

크린토피아 광주본선제일공공채점

남구 봉선동 516-18 와이셔츠세탁, 이불세탁소, 드라이클리닝, 운동화세탁소 ☎062)676-7705

백세 쭈꾸미식당

전남 나주시 이창동 158-16번지 쭈꾸미, 삼겹살, 갈비, 오리로스 ☎061)332-7313, 010-8224-7313

진주공방

동구 자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국공예 수업 및 주문 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소품만들기 ☎010-3906-1718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씨브웨이 광주충장로점

동구 중앙로 160번길 31-18 (황금동) 직원모집 합니다. 08:00~23:00 ☎062)236-1121

무크광주세정점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웃렛 2층 258호 화사한 봄 신상품 대량인고 남.여 20~40% 세일 (일부품목 제외) ☎062)370-9258

고흥나루터

동구 자산동 705-9 (법원뒷길) 하모(참영어), 샵바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폼비올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그집고기

북구 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첨단 2지구 문화실험 뒤) 편, 돼지고기 전문, 닭발 대표 양병학 ☎010-6648-8842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신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 사주, 운세, 궁합, 택일 시험,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섭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정민각 ☎062)263-2223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꼬아전통마사지 전문점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25, 2층 (남평5일시장앞 대로변 새건물2층) 최신시설완비 남.여 마사지 전문점 친철 신용 본위 ☎010-9277-2011, 010-4624-8457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기담철학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권·양권)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